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회순 박순철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

광양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부분 개편은 지난 1월 1일부터 광역교통망 시행에 따른 일부 주민의 의견이 미반영 되어 불필요하게 감차된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종전 14회에서 1회로 감차된 '11-1번 노선(광양매화A~공기)'은 환승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통노선을 복구하면서 7회로 증차됐다.

또 기존 5회에서 3회로 감차된 '11-2번 노선(광양매화A~망덕포구)'은 다시 5회로 증차됐으며, 망덕포구에서 광양방면 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교통편의 증진

내달 1일부터 시행...일부 노선 증차·감차

공기를 경유해 공기에서 광양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기존 17회에서 9회로 감차된 '12번 노선(광양매화A~광영부영)'은 14회로 증차했으며, 오전 7시 광영발 노선을 추가하는 한편 광양고를 경유해 학생들의 등교에 맞추어 운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창덕을 경유하는 차량과 중북 노선을 피하기 위해 첫차와 막차에는 창덕을 경유하지 않는다.

기존 13회에서 7회로 감차된 '17번 노선(광양~망덕포구)'은 9회로 증차했으며,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하

는 '31번 매남발 노선'은 광양읍까지 경유를 하게 된다.

'32번 노선(광양매화A~백암)'은 버스이용객들의 시간을 고려해 오전 8시 50분 옥곡발 노선 폐지하고, 오후 6시 50분 옥곡발 노선을 추가해 광양읍까지 경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사로 인해 도로 통행이 금지·제한된 '23번 노선(광양매화A~우림필류A)'은 제철로에서 중마로로 우회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새 승강장이 추가·변경 된다.

그러나 종전 15회에서 29회로 증

차된 '9번 노선(보전대하~우림필류A)'은 23회로 감차해 운행하게 되며, 종전 오전 6시 10분에 출발하던 첫차는 10분을 앞당긴 오전 6시에 출발하게 된다.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생활정보(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주 교통행정팀장은 "시는 이번 일부 개편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시간표를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 승강장에 변경된 노선시간표를 부착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줄여나가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 도시재생' 자치분권 혁신모델 부각

심보균 행안부 차관에 이어 관련 과장·실무자 등 방문

순천시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지역으로 중앙부처에서 순천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등 4개 부서 과장 및 실무자 17명이 도시재생 선도구역과 청수골 새마을, 청춘창고 등을 방문, 주민 참여와 주도로 성과를 올린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비롯한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사례를 둘러보고 자치분권의 혁신모델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순천시를 방문해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청년 일자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대표적 선도모범사례로 평가함으로써 관련 실무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 방문단은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례를

청취하고, 도시재생 선도구역, 청수골 새마을, 청춘창고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주민주도형 천가지로(생태, 문화, 역사, 사람)의 4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챌린지' 등 중앙시청·육천수변문화공간 '창작예술촌' '장안창작극단' '청수정 마을카페'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지원회 사업' '생활문화센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역량을 높여 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구, 승주군청의 존치여부와 서문내내소의 설계안에 대한 초기 주민과의 갈등을 놓고 2~3년간 꾸준히 현장설명회와 주민토론회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무한상상 창의발명 심화교실' 운영

10개 초등학교 대상



광양시는 오는 4월부터 창의·발명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된 동·면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8 무한상상 창의발명 심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별로 5회(1회 2시간씩)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민 속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과학과 수학적 발명 기법의 활용을 통해 직접 고안, 설계, 제작, 시행과정을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발명교육에 인기가 있는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간단한 일을 복잡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기계인 골드버그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원리와 기계적 메카니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과학적 탐구력, 협동심 및 발명 아이

디어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

이들러 3D화된 원리를 체험해보는 카드보드(VR) 실험, 자외선 감별기 및 LED겨울메모장 발명 등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창의적 발명을 찾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실 운영을 위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9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명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벼 무논점과 재배 시범 농가 모집

내달 9일까지 신청

나주시가 관내 벼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벼 무논점과 재배시범사업' 신청 농가를 오는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과 농촌 노동력의 양적감소 및 질적저하에 대응하는 생력 기계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안된 벼 무논점과 재배는 기존 직파재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계이앙재배의 장점을 접목시켜, 기존의 답수직파보다 재배안정성을 크게 높인 기술이다.

기존 기계이앙이 가지고 있는 육묘와 이앙 과정을 생략하고 농가가 편하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벼 생산비 절감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입모 불안정, 잡초방제 도복 등 기존 직파재배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운·정지·이앙·제조제 처리 등의 벼 농사 전체 과정의 노동력이 기계이앙 대비 평균 23%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쌀 생산비는 10%, 경영비는 8%를 각각 절감함으로써 쌀 생산량 증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벼 무논점과 재배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못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눈에 물을 가두고 못자리 설치하는 과정 등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지만, 무논점과 재배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배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농축협 순천사랑상품권 대행 협약

순천시는 최근 농협은행순천시지부, 순천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전남남농농협과 함께 순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순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농축협에서 대행하고 농축협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등에서 필요한 경우 상품권을 판매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의 가장 큰 목적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순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해서 도심에서 소비하게 유도할 계획인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맹점 확보가 관건이므로 제외대상을 제외한 모든 업소와 상인회, 업종별 단체, 시민들께서는 가맹점 등록과 모집에 적극 협조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이며 5만 원권은 차후에 별도 제작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3월 중순 상품권 유통을 목표로 현재 상품권 제작과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다.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업소인 가맹점은 순천시 관내의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편의점, 치킨, 제과, 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자영업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도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순천시청(경제진흥과 749-573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축협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 준수사항 등 이행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노점상 확인서이다.

순천=김충영 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북 콘서트' 개최

내달 3일 오후 3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고대 유적을 답사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북 콘서트는 3월 3일 오후 3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열린다.

이번에 발간한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겨리 출판사)'는 구충곤 군수와 송영길 국회의원이 인문학자, 화가들과 함께 화순을

비롯해 나주와 영암 등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고대 유적을 답사한 기행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구 군수와 송 의원이 중심이 되어 팀워크를 구성해 2년 동안에 걸쳐 기획과 원고 집필, 화점기행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다.

단순한 역사유적의 기행에 그치지 않고 그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한 내용을 담았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취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군 향토사업단

061. 393. 8981